가정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3년 12월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20 No.2, 105-112, December, 2013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진 은 희[1] · 강 화 정[2]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무를 근거한 교육이며 실습은 간호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학습된 지식을 실무에서 실제로 통합하여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수적이다.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정규 간호교육과정을 마친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여 사회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호의 이론적 지식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McEwen & Brown, 2002). 간호 교육과정 중 실습교육은 기본간호수기 향상을 위한 교내실습과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실무 및 간호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외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현장에서 역할 모델을 관찰하고 임상실무 활동을 경험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자의 권리존중의식이 높아졌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대부분이 실제적인 간호행위를 하기보다는 관찰 위주로 변화되어 간호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간호기술의 습득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전체 과정동안 신규간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실습경험을 못하였고(Cho & Kwon, 2007) 졸업 후 임상현장에 나가서 간호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두렵고 힘들다고 호소하였다(Farrand, McMullan, Jowett, & Humphreys, 2006). Kwon과 Seo (2012)의 졸업반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운영에 대한 요구조사는 기본간호실습실 개방에 의한 사전 연습이 가장 높은 요구였고 부족한 간호수기를 반복실습을 통하여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이 생소한 병원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환자에게 숙련되지 않은 간호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Park, Hwang, & Choi, 2003).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간호학생이 대응하기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지각과 자기효능감이 선행되어 역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Kendall & Bloomfield, 2005). 특히 업무에 대한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은 업무성과의 예측요인이며 성취경험이 높을수록 증가한다(Song, 2009).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Bae, & Jung, 2002).

자존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자존감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자질 중 하나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통찰력을 지니게 한다(Kim & Lee, 2005). 또한 임상실습에 만족한 학생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Whang, 2006; Kim & Lee, 2005).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

주요어 : 간호수기, 자기효능감, 자존감
1) 진주보건대학교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ehjin829@naver.com)
2) 진주보건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투고일: 2013년 10월 14일 수정일: 2013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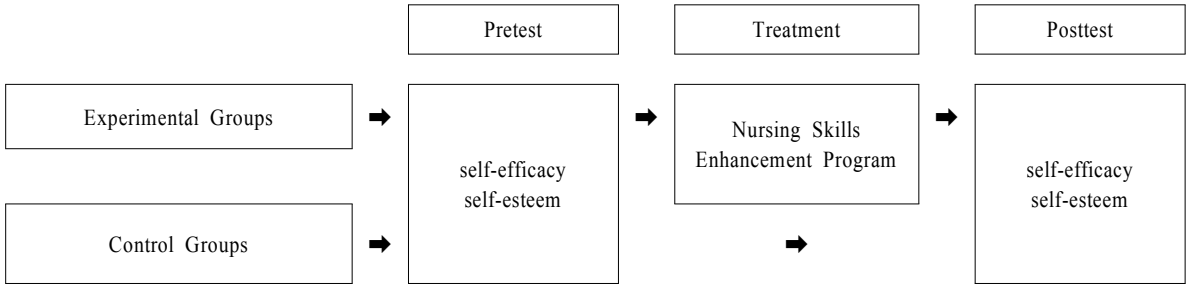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design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고,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맡은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실습의 효율화를 위한 요인 중 하나이다(Kendal & Bloomfield, 2005; Nath, Schmidt, & Gunel, 2006). 간호학전공, 기본간호학실습, 임상실습에 만족한 학생이 자기효능감도 높았고(Lee, 2008; Whang,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인식정도가 낮고 대인관계도 긍정적이었다(Han, 2005; Sok, Shin, & Kim, 2006).

간호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수기를 반복 실습함으로서 간호수기 수행능력이 향상된다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증가될 것이고, 졸업 후 신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임상현장에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적용 전·후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파악하여 실습교육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J대학 졸업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자존감의 전·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이 J대학 졸업반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이 J대학 졸업반 간호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가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1 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제 2 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중 실험군에게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대조군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실험군과 같은 시점에 동일 변수를 반복 특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Figure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9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행되었다. 연구는 J대학 졸업반인 간호과 3학년 313명 중 참여를 원하는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사전 조사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자료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사전조사를 한 학생 중 무작위로 132명에게는 실험처치를 하였다. 대조군으로 참여한 174명은 실험 종료 후 겨울방학에 간호수기실을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 도구

● 기본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업무에 관한 Song (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21개의 간호업무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10개의 항목을 검토하여 기본수기로 수행할 수 있는 정맥주사, 유치도뇨, 산소요법, 관장의 4개 항목을 선정하여 반복실습을 실시하였다. 반복실습은 1일 1회 4개 항목을 실습하도록 하였으며 시간 제한은 없었고 총 5회 반복 실습하도록 하였다. 실습학생은 출석체크 후 실습을 하였고, 실습종료 후 4가지 실습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게 하여 성실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실습장소는 기본간호수기실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정맥주사시뮬레이터(AR-200) 5대, 교육용 산소공급장치(MIF-300) 3대, 도뇨모형 여성용(MW2B) 4개 남성용 1개(MW2A), 관장모형(LM068) 5개를 테이블에 배열하여 사용하였고 도뇨의 경우에 여학생은 여성모형, 남학생은 남성모형으로 실습하였다. 기본간호수기실에는 종합병원 임상경력 3년 6개월의 실습전담조교가 상주하여 학생들의 출석 및 4개 실습항목에 대한 실습 여부를 확인하고 실습지도를 하였다.

●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은 간호수기 평가표를 사용하여 실습전담조교 1인이 평가하였다. 평가표는 정맥주사 24개 항목, 관장 10개 항목, 유치도뇨 10개 항목, 산소요법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평가표 중 관장, 유치도뇨, 산소요법은 본대학 기본간호학 교수 2인, 서울 및 부산지역 기본간호학교수 각 1인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였고 정맥주사는 시뮬레이터의 자체평가표를 사용하였다. 평가는 각 항목별 100점 만점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 (1979)이 개발하고 Kim (2000)이 사용한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도구의 척도는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자존감은 조사 후 역코딩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02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Jerusalem과 Schwarzer (1992)의 도구를 Suh와 Kim (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러함' 4점, '대체로 그러함' 3점 '거의 아님' 2점, '전혀 아님' 1점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78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사는 x^2-test를 사용하였다. 간호수기 향상프로그램 적용 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존감,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정하기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의 수기평가 결과의 차이를 검정하기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Table 1> Homogenity Test of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06)

		Exp.(n=132)	Cont.(n=174)	x^2	p
		N(%)	N(%)		
Gender	Male	13(9.8)	12(6.9)	2.020	.364
	Female	119(90.2)	162(93.1)		
Age(year)	20-21	93(70.5)	115(66.1)	22.520	.095
	22-23	16(12.1)	26(14.9)		
	Over24	23(17.4)	33(19.0)		
Religion	Catholic	6(4.5)	11(6.3)	4.039	.401
	Christian	24(18.2)	21(12.1)		
	Buddhism	39(29.5)	46(26.4)		
	No	63(47.7)	96(52.2)		
Satisfaction at school	Good	25(18.9)	18(10.3)	5.274	.072
	Fair	94(71.2)	142(81.6)		
	Poor	13(9.8)	14(8.0)		
School credit	High	25(18.9)	19(10.9)	.603	.740
	Middle	94(71.2)	109(62.6)		
	Lower	13(9.8)	46(26.4)		
Economic level	Good	18(13.6)	19(1.7)	.850	.654
	Fair	82(62.1)	109(83.9)		
	Poor	32(24.2)	46(14.4)		

본 연구는 J대학 간호과 졸업반 학생으로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실험군 90.2%, 대조군 93.1%였고, 나이는 20-21세가 실험군 70.5%, 대조군 66.1%였다. 종교는 없음이 실험군 47.7%, 대조군 52.2%였고 학교 만족도는 실험군 71.2%,대조군 81.6%에서 보통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실험군 71.2%, 대조군 62.6%가 보통이었고 경제 상태는 실험군 62.1%, 대조군 83.9%가 중간이었다. 성별, 나이, 종교, 학교 만족도, 학교 성적, 경제상태의 전체영역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한 결과를 보였다.

● 중재 전 자기효능감, 자존감의 집단 간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의 자기효능감 평균 29.13점, 대조군 평균 29.03점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자기효능감(p=.812)의 차이가 없었으며,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의 자존감(p=.214)은 평균 31.14점, 대조군 평균 31.7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omogen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06)

	Exp.(n=132)	Cont.(n=174)	t	p
	M±SD	M±SD		
Self-efficacy	29.13±3.355	29.03±3.852	.238	.812
Self-esteem	31.14±4.178	31.78±4.549	-1.246	.214

가설 검정

● 제1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사전조사 시 실험군 29.13점, 대조군 29.03점으로 차이가 없었지만(p=.812) 사후조사에서는 실험군 33.31점, 대조군 30.0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간호수기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효능감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Table 3).

● 제2가설

"제 2 가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결과 자존감은 실험군 31.14점, 대조군 31.78점으로 차이가 없었지만(p=.214) 사후조사에서는 실험군 34.83점, 대조군 32.09점으로 사후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간호수기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Table 3).

실험군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적용 전·후 차이 수행능력차이

본 연구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간호수기 수행능력 전·후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정맥주입, 관장, 도뇨, 산소요법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 전, 후 평가

<Table 3> Difference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06)

		Exp.(n=132)	Cont.(n=174)	t	p
		M±SD	M±SD		
Self-efficacy	Pretest	29.13±3.355	29.03±3.852	.238	.812
	Posttest	33.31±2.083	30.03±3.221	10.198	p<.01
Self-esteem	Pretest	31.14±4.178	31.78±4.549	-1.246	.214
	Posttest	34.83±2.627	32.09±4.311	6.452	p<.01

<Table 4> Differences of Nursing Skill Score in Experimental Group (N=132)

	Before	After	t	p
	M±SD	M±SD		
IV infusion	56.52±10.798	82.23±10.111	-19.976	p<.01
Enema	49.70±14.564	71.14±17.459	-10.834	p<.01
Urinary catheterization	39.32±18.418	49.70±23.442	-4.000	p<.01
Oxygen theraphy	52.73±12.300	78.94±16.075	-14.879	p<.01

시 4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맥주사는 수행 전 56.5점에서 수행 후 82.2점으로(p<.001)로 향상되었고, 관장은 수행 전 49.7점에서 수행 후 71.1점으로 유의한 차이(p<.001)로 향상되었다. 도뇨는 수행 전 39.3점에서 수행 후 49.7점으로 유의한 차이(p<.001)로 향상되었으며, 산소요법은 수행 전 52.7점에서 수행 후 78.9점으로 유의한 4 차이(p<.001)로 향상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교육에서 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현장에서 역할 모델을 관찰하고 임상실무 활동을 경험하여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통합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다(Chan, 2002).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에 임상수행기술이 잘 준비되었거나 실습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Kang, Cho, Rho, Boo, & Ahn, 2006, Kim & Choi, 2008). 그러나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대학 학생은 평균 2년의 현장교육을 하지만 간호행위를 하기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순히 관찰이나 설명위주의 교육(Cheung & Song, 2006)으로 이루어져 간호학생들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 임상에서 근무시 정맥주사, 의료장비조작 등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았다(Song, 2009). 신규간호사 대상 Song (2009)의 연구에서 기본간호 2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하위 10가지 중 간호수기에 해당하는 정맥주사, 유치도뇨, 산소요법, 관장 순으로 업무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간호사와 학생간호사의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수행 빈도가 높은 항목은 차이가 있었는데, Song & Moon (2008)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직무 수행도가 높은 항목으로 투약하기, 활력징후 측정하기, 일반약물 관리하기 순이었고,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도가 높은 항목은 활력징후 측정하기, 섭취배설량 측정하기, 의식수준 관찰하기의 순 있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업무 수행은 간호사와 비교할 때 투약준비 및 관리, 섭취배설량 측정 등에서 수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앞으로의 임상실습 시 투약관련 간호 등의 직접간호 시간의 증가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신규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임상현장에서 간호수행도가 높은 항목의 차이를 줄인다면 신규간호사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단축되고 신규간호사의 교육에 따른 병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감소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 재학 시 신규간호사에게 필요한 간호수기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강화한다면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대상자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간호수행기술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곧 신규간호사가가 될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졸업 전 교내에서 신규간호사에게 필요한 간호수기술을 향상시킨다면 임상현장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신규간호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Song (200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종료한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신규간호사의 효능감이 낮은 항목인 정맥주사, 유치도뇨, 산소요법, 관장 4개 영역의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기향상프로그램으로 선정한 항목은 Yoon, Kim, & Choi (2013)의 간호학생들에게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수기수행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말초정맥주입, 근육주사, 유치도뇨 등 침습적인 간호수기에 취약하였고 실습강화가 필요한 것과 유사한 항목이었다. 실험군에게 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 후 간호수기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맥주사는 25.7점 증가로 82.2점, 관장은 21.4점 증가되어 71.1점, 도뇨는 10.4점이 증가한 49.7점, 산소요법은 26.2점 증가하여 78.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 (2009)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대상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이 정맥주사 59.9점, 관장 64.4점, 도뇨 62.2점, 산소요법 64.4점인 결과와 비교할 때, 정맥주사, 관장, 산소요법은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대상자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도뇨는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무균절차에 대한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도뇨는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졸업하기 전 도뇨의 반복실습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수기향상 프로그램 수행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부족한 기본간호수기를 반복 실습하여 잘 할 수 있게 됨으로 자기효능감도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Lee (2008)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에 사전 프로그램을 시행 후 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수기술과 정상관관계가 있다는 Shin (2008)과 Yoo, Son, Yoo, & Hong (2003)의 결과와 유사하다 . 또한 Whang (2006)의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와 같은 결과이지만 Song (2009)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간호실무 능력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존감도 간호수기 수행능력 향상을 통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Lee (200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학습동기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습습관 점수 및 자아 존중감이 증가한 것과 Lee (2008)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이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

과로 생각된다. 또한 Whang (200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간호학전공에 만족할수록 자존감 높은 결과를 보인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Oh (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순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대학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졸업반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자존감, 자기효능감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졸업반 간호학생에게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차이를 알아보고자 수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연구이다. 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은 기존연구에서 신규간호사들의 효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정맥주입, 관장, 도뇨, 산소요법 4개의 간호수기항목을 선정하였고 5회 반복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동질하였다.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졸업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수기 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재학 시 수기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학생이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다른 신규간호사와의 수기수행능력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의 실습여건에 따라 간호수기수행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타 대학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수기향상 프로그램 시행 후에도 점수가 낮은 도뇨 수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Chan, D. S. (2002). Developmen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environment studies to assess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hospital as a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 69-75.

Cheng, N. Y. & Song, Y. S. (2006). Clinical applic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 for novic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3), 334-342.

Cho, M. H. & Kwon, I. S. (2007).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143-154.

Farrand, P., McMullan, M., Jowett, R., & Humphreys, A. (2006). Implementing competency recommendations into pre-registration nursing curricula; Effects upon levels of confidence in clinical skills. *Nurse Education Today*, *26*, 97-103.

Han, K. S. (2006).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3), 585-592.

Jerusalem, M. & Schwarzer, R. (Eds.),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Washington, DC: Hemisphere.

Kang, Y. S., Cho, H., Rho, Y. S, Boo, E, H, Ahn, K. H. (2006). The effects of coopera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1), 13-20.

Kendall, S. & Bloomfield, L. (2005).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1*(2), 174-181.

Kim, S. L. &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Kim, I. H. (2000). A review on the exercise therapy for the elderly as nursing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Gerontology*, *9*, 37-49.

Kim, J. Y. & Choi, E.Y. (2008). Learning element re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 receiving PBL with simulatio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5), 731-742.

Kwon, I. S. & Seo, Y. M. (2012).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25-33.

Lee, H. I. (2008).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1), 97-107.

Lee, S. H. (2006).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s, and self 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1), 5-12.

Lee, S. H. (2008).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program on anxiety, self esteem and self- 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4), 539-547.

McEwen, M. & Brown, S. (2002). Conceptual framework in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a: Report of national surve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1), 5-14.

Nath, C., Schmidt, R., & Gunel, E. (2006).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vary most with educational rank and ag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70*(8), 825-834.

Oh, H. K. (2003) A Stud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5*(2), 278-286.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2), A Study of self- 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Park, K. S., Hwang, Y. Y. & Choi, E, H. (2003).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ntensive Care Uni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5*(3), 373-382.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Ryan, R. M. & Deci, E. L. (2000).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Shin, E. J. (2008).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380-386.

Sok, R. S., Shin, D. S. & Kim, K. B. (2006).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75-481.

Song, J. H. & Moon, M. J. (2008). Frequency and importance of nursing practice between novice nurses and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1), 22-33.

Song, Y. S. (2009). A Correlation study on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competency of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1), 56-63.

Suh, K. H. & You, J. M. (2004). Decision-Tree Model of Long-term Abstention from Smoking: 2-Years Following Smoking Cess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903-922.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 efficacy,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Yoo, M. S., Son, Y. J., Yoo, I. Y., Hong, S. K. (2003).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Skil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3), 343-350.

Yoon, J., Kim, K. J. & Choi, M. S. (2013). The effect of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73-284.

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Improves th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Senior Nursing Students

Jin, Eun Hee[1] · Kang, Hwa Jung[2]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in improving th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senior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hat enrolled 306 senior nursing students. The nursing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n=132) or control group (n=174), and students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completed 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which consisted of four skills training components: IV infusion, enema, O_2 therapy by means of cannulation and urinary catheterization.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the chi-squared test, and the paired t-test using the SPSS/pc 15.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ho were assigned to the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were significantly better compared to thos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10.198 and t=6.452, for self-efficacy and self-esteem, respectively, p<.001 for both variables). **Conclusion**: Our findings clearly show that a nurs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seni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Education, Self-efficacy, Self-esteem,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in, Eun Hee*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Sangbongsedong, Jinju-city, Gyeongnam, Korea
Tel: 82-55-740-1844 Fax: 82-3030-400-1830 E-mail: ehjin829@naver.com